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太陰病의 상관성 연구

이승렬 · 김윤태 · 신흥묵*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f Relationship on TaiYin-disease between the Chapter of Channels in Miraculous Pivot of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 and in ShangHanRun

Seung Yeul Lee, Yon Tae Kim, Heung Mook Shin*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who had studied Shang Han Run thought highly of meridians and until now it was generally known that the chapter of heat in the Plain Questions of Emperor's Classic Internal Medicine(ECIM:黃帝內經, 素問·熱論) was the basis of Shang Han Run. The chapter of heat in the Plain Questions of ECIM was the first text in which the basic theory on six-channels according to the types of illness was introduced. In my point of view, the theory of treating six-channels had close relation to the Chapter of Channels in Miraculous Pivot of ECIM(黃帝內經, 靈樞·經脈篇) as well as the chapter of heat in the Plain Questions of ECIM. Therefore I took a look at the origin of treating six-channels in Shang Han Lun and illuminated again the meaning to compare the parts of <TaiYin-disease(太陰病)> in Shang Han Lun with the Chapter of Channels in Miraculous Pivot of ECIM. Conclusion : The symptoms of TaiYin-channel(太陰經) in the Chapter of Channels in Miraculous Pivot of ECIM were, for the most part, accord with those of TaiYin-disease in Shang Han Lun. Furthermore, the symptoms in Shang Han Lun were explained definitely and in detail. Therefore the theory of Shang Han Lun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ECIM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aiYin-disease implied symptoms of pi-spleen meridian(脾經) and fei-lung meridian(肺經). Therefore Shang Han Lun was the foundation of treatment based on overall analysis of signs and symptoms(辨證論治) in respect of meridian as well as the text in which the steps of infectious diseases(外感病) of human bodies were explained.

Key words : Shang Han Run(傷寒論), the Chapter of Channels in Miraculous Pivot of ECIM(靈樞·經脈篇), TaiYin-disease(太陰病)

서론

『傷寒論』은 後漢 張 機(仲景)의 著作인 『傷寒雜病論』의 一部分에 속하며 理·法·方·藥을 모두 갖추고 있는 醫書로서, 六經에 근거하여 病을 분류하고 八綱으로 證을 辨別하였으며 六經과 辨證을 밀접하게 결합하여 治法·처방을 선택하도록 한 辨證論治의 효시로서 意義를 지니고 있다.

論者は 前述한 論文¹⁾에서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기본틀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靈樞·經脈篇』의 經脈病候에 기초하고 있다는 觀點을 제시하고,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陽明病을 대상으로 그 病후를 상호 비교·분석한 바 있다.

論者は 연구의 폭을 보다 확대하여 『傷寒論』의 六經病 중 陽明病과 表裏로 대응하는 太陰病의 脈證并治를 『素問·熱論』의 太陰分證 및 『靈樞·經脈篇』의 太陰經脈病候와 비교·분석하여¹⁾고찰한바 旨점을 보고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 신흥묵, 경북 경주시 서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heungmuk@donguk.ac.kr, Tel : 054-770-2372

· 접수 : 2004/02/11 · 수정 : 2004/03/22 · 채택 : 2004/04/02

1) 이승렬, 신흥묵,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陽明病에 대한상관성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6) : 1085-1091, 2002.

연구방법

- 『傷寒論』의 太陰病의 脈證并治가 『靈樞·經脈篇』의 經絡病候를 기초로 하고 있는지 究明해보기 위해 다음의 研究方向을 설정하였다.
 - 『素問·熱論』의 太陰分證과 『傷寒論』의 太陰病證의 강령을 비교하여 意義를 분석한다.
 - 『傷寒論』의 太陰病의 病候를 변증한다.
 - 『靈樞·經脈篇』에 나타난 太陰經의 病候를 변증 및 분석한다.
 - 2),3)의 분석에 기초하여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에서의 太陰病證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 本論文에서 활용한 『傷寒論』은 明代 趙開美의 '仲景全書本(宋版本)'²⁾을 底本으로한 『傷寒論譯註』³⁾을 기준으로 하였다. 논문중에서 『傷寒論』의 條文을 효과적으로 색인, 대조하기 위해 脚註나 괄호로 처리한 아라비아 숫자는 同 서적에 나와 있는 條文의 번호를 나타낸다.
- 『傷寒論』에서의 辨太陰病脈證并治의 分類는 『仲景辨證治療學』⁴⁾과 『經絡辨證概論』⁵⁾에 기초하였다.

본론

-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辨證

『素問·熱論』에서는 傷寒의 병증을 巨陽, 陽明, 少陽의 三陽病과 太陰, 少陰, 厥陰의 三陰病으로 분류하는 六經分證의 綱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傷寒論』 六經辨證의 基礎로 인식하고 있다.⁶⁾ 『素問·熱論』의 太陰病은 腹滿而噎乾으로 『傷寒論』에서의 太陰病의 強령인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 噎乾, 時腹自痛의 증상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傷寒論』의 六經 개념이 비록 『素問·熱論』의 六經보다 포괄적이어서 經脈循行의 理致로만 설명할 수 없다하더라도 『傷寒論』의 太陰經 辨證理論이 『素問·熱論』의 六經分證思想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표 1. 『素問·熱論』의 太陰分證과 『傷寒論』의 太陰病證(綱領) 비교⁷⁾

	熱論		傷寒論
	病症	經脈과 그 分布	病症(綱領)
太陰	腹滿·噎乾	太陰脈布胃中 絡於噎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 噎乾, 時腹自痛

2) 裴堯萐 編著,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 현재까지 전해지는 『傷寒論』의 二大版本에는 北宋시대(1065년)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친 '宋版本(일명 宋本)'과 金代 成無己의 '注解傷寒論版本(일명 成本)'이 있는데, 明代 趙開美의 '仲景全書本'은 이 '宋版本'이 후대에 전해진 것이다. 『傷寒論』의 版本은 이밖에도 日本에 전해진 傳寫本으로 '康治本', '康平本' 등이 있다.

3)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4.

4) 戴玉 等 編著, 仲景辨證治療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5) 劉孔藤 主編 岳汎 周然密 錢小燕 編著, 經絡辨證概論, 中國, 廈門大學出版社, 1988.

6) 上海中醫學院 編, 新編中醫學教材 中醫學基礎, 中國 上海, 商務印書館, 1984. p. 6.

7) 申興默 金吉菴,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臟腑經絡學, 慶州, 東國大學校 出版局, 2000. p. 148.

2. 『靈樞·經脈篇』의 經脈病候

『靈樞·經脈篇』의 經脈病候는 是動則病과 所生病者의 病機格式으로 구분되고 氣盛과 氣虛의 변증이 있으며, 病證의 盛, 虛, 寒, 熱 등 辨證에 따른 鍼과 灸의 치법까지 提示하고 있어 『素問·熱論』의 단순한 병증분류에서 발전하여 변증논치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靈樞·經脈篇』의 내용이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논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傷寒論』의 '辨太陰病脈證并治'의 病候를 변증하여 개괄하고 『靈樞·經脈篇』의 太陰病의 病후를 동일기준으로 변증분류하여 비교 고찰해 보기로 한다.

3.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太陰病 분석

1) 『傷寒論』 太陰病의 辨證

太陰은 三陰의 첫단계에 해당하며 經絡으로는 足太陰脾經과 手太陰肺經을 말하는데 太陰病은 太陰經의 燥濕氣化의 실조가 脾와 肺의 病증으로 나타난다.

太陰病의 病因은 주로 평소 체질적으로 中焦의 陽氣가 不足한 사람이 風寒外感 또는 內傷으로 寒邪가 太陰經에 直中하여 발생하기 때문이고, 간혹 太陽·陽明病의 誤治로 脾陽을 손상시켜 轉變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太陰病의 初期에 表證이 겸한 상태를 '太陰中風證'으로 본다.

한편 『傷寒論』에서는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胸下結硬"을 太陰病의 提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脾氣不足으로 中焦의 陽氣가 不振하여 寒濕이 內盛하므로 脾臟의 運化 및 升降機能이 실조되는 虛寒證으로 '太陰氣虛證'에 해당한다. 脾와 胃는 인체에서 水穀의 收納과 運化를 주관하면서 陰陽의 表裏關係를 맺고 있으며, 經絡의 기화측면에서도 陽明經과 太陰經은 燥濕相濟의 待對를 이루고 있다. 陽明病은 實證이 주가 되고 太陰病은 虛證이 위주이므로 이러한 病情을 "虛則太陰 實則陽明"이라 표현한다.⁸⁾ 또한 같은 虛證이라고 해도 '陽明中寒證'과 '太陰氣虛證'은 구별되는데, 胃는 水穀을 받아들여 소화하고 脾는 소화된 水穀精微를 運化하기 때문에 만약 胃氣가 虛寒하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脾氣가 虛寒하면 運化하지 못한다. '太陰氣虛證'이 악화되면 脾氣가 水濕을 運化하지 못하여 안으로 濕이 모여 痢疾泄瀉와 함께 氣滯, 血瘀, 鬱熱을 초래하여 黃疸 등 濕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太陰濕熱證'으로 표현한다.

太陰病의 치료는 '溫中扶陽'이 正治法인데 溫中健脾, 祛寒燥濕 등의 방법으로 寒濕의 運化를 목표로 하고 원칙적으로 攻下 등 祛邪의 治法을 禁하고 있으나, 太陰病이 表證이나 實證을 兼하고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發汗이나 攻下法을 사용할 수도 있다.

『傷寒論』에서는 太陰病에 대한 相關 條文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⁹⁾ 足太陰脾의 虛寒證을 주로 다루고 있다. 논자는 『傷寒論』의 太陰病을 『靈樞·經脈篇』의 病候와 비교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中風證', '氣虛證', '濕熱證'으로 분류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8) 朴憲在, 傷寒論概論, 서울, 藥業新聞社出版局, 1995. p. 184.

9) 傷寒論 전체 406개 條文(明 趙開美 仲景全書本 기준)중에 太陰病 條文은 총 8개임.

(1) 太陰中風證

‘太陰中風證’은 經氣太過의 證候이며 手足太陰經의 邪氣가 盛하여 榮衛가 不和하고 經氣가 不舒하므로 表證을 겸하여 外感中風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 太陰氣虛證

‘太陰氣虛證’은 經氣가 不足하여 脾氣의 運化가 되지 않는 병리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傷寒論』에서는 이를 太陰病의 대표적 병증으로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의 증상을 제시하고 있다. 營氣가 中焦에 충분히 運輸되지 못하여 脾胃의 升降기능이 失調되고 脾氣不運으로 營氣가 體幹과 四肢, 舌根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水濕이 不化하여 泄瀉 등 각종 寒濕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3) 太陰濕熱證

‘太陰濕熱證’은 脾氣의 不運으로 水濕을 運化하지 못하여 痢疾泄瀉의 증세를 유발하는 것이며, 水濕內聚는 이차적으로 氣滯, 血瘀, 鬱熱의 증상을 초래하며 小便不利를 동반하면 黃疸 등 濕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2) 『靈樞·經脈篇』의 太陰經病

(1) 脾足太陰經의 病候

① 病證 : 脾의 經絡病候는 太陰濕의 氣化와 氣機의 失調로 인한 水穀精微와 水濕의 運化장애가 胃, 肺, 心의 질환 및 經脈 분포부위의 병증으로 나타나는데, 『靈樞·經脈篇』에서 다음과 같이 개괄하고 있다.

是動則病 舌本強 食則嘔 胃脘痛 腹脹善噎 得後與氣則快然如衰 身體皆重 是主脾所生病者 舌本痛 體不能動搖 食不下 煩心 心下急痛 溇 瘕泄 水閉 黃疸 不能臥 強立 股膝內腫厥 足大指不用

② 分析和 辨證 : 太陰經은 濕土의 氣化를 주관하며 中見之氣인 陽明의 燥金과 相交하여 燥濕의 相濟를 유지한다. 足太陰脾經은 脾臟의 氣化를 주도하는 經脈으로 運氣의 相合이 太陰濕과 脾土(己土)로 濕土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同名經인 手太陰肺經, 表裏經인 足陽明胃經과의 經氣相通으로 체내 燥濕을 조절하여 脾, 胃 및 肺의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¹⁰⁾

『靈樞·經脈篇』에 기술된 足太陰經의 病證은 대체로 經氣가 부족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經氣不運의 병리에 기인하며, 足太陰經의 病候는 『傷寒論』의 변증방법과 같이 太陰氣虛證, 太陰濕熱證으로 분류되고 이밖에 『傷寒論』에서는 보이지 않는 經絡部位의 병증도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太陰氣虛證>

太陰氣虛證은 足太陰經의 脾氣의 不足으로 營氣가 舌下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舌根을 충분히 濡養하지 못하여 舌根이 굳어지고 아픈 <舌本強>, <舌本痛>의 증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脾胃의 升降기능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증상인 <食則嘔> 외에 <胃脘痛>, <腹脹善噎>, <食不下>의 納呆의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大便을 보거나 방귀를 꾸면 上쾌하여 輕減되는 듯하므로 <得後與氣則快然如衰>라 한다. 또한 脾氣不運으로 營氣가 體幹과

四肢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므로 신체가 무거워 활동이 불리한 <體不能動搖>, <身體皆重>의 증상을 느끼게 된다. 또한 脾經의 循行部位¹¹⁾는 主幹외에 分支로 <其支者 復從胃 別上膈 注心中>하여 手少陰心經과 만나는데 脾氣不運으로 營血이 心臟을 제대로 供養하지 못하므로 <煩心><心下急痛>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太陰濕熱證>

太陰濕熱證은 脾氣不運으로 인한 水濕의 不化로 인한 水濕의 內聚로 일반 泄瀉인 <溇> 또는 痢疾의 泄瀉인 <瘕泄>의 증상을 유발한다. 또 小便이 막히는 <水閉>나 濕熱證인 <黃疸>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濕熱로 인해 편안히 누워있지 못하는 <不能臥 強立>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經絡部位의 病證>

『靈樞·經脈篇』에서는 이밖에 足太陰脾經의 병증으로 『傷寒論』에서는 보이지 않는 脾經의 循行部位와 관련된 病證이 언급되어 있는데, 脾經이 流走하는 부위의 <股膝內腫厥>, <足大指不用>의 증상이 있다.

(2) 肺手太陰經의 病候

① 病證 : 肺의 經絡病候는 肺經의 氣化失調에 따른 胸部, 咽喉, 氣管, 鼻, 肺질환과 經脈의 분포부위의 병증으로 나타나는데, 『靈樞·經脈篇』에 다음과 같이 개괄하고 있다.

是動則病 肺脹滿 膨脹而喘咳 缺盆中痛 甚則交兩手而脅 此謂臂厥 是主肺所生病者 咳 上氣喘渴 煩心 胸滿 脇臂內前廉痛厥 掌中熱 氣盛有餘則 肩背痛 風寒 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則 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

② 分析和 辨證 : 手太陰肺經의 육기 특성은 燥이며 오행은 辛金이다. 肺經은 肺臟의 氣化를 주관하는 經脈으로 太陰經에 배속되는 관계로 肺金의 燥性이 太陰濕과 相交하여 燥濕의 相濟를 유지한다.

手太陰經의 經氣 변동은 △經氣의 厥逆 △經氣의 有餘 △經氣의 不足(虛陷)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¹²⁾, 이를 기준으로 나누어 본 手太陰經의 病候는 『傷寒論』과 같은 太陰中風證, 太陰氣虛證, 太陰濕熱證으로 변증되고 이밖에 『傷寒論』에는 보이지 않는 太陰厥逆證과 經絡部位의 病證도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太陰中風證>

『靈樞·經脈篇』에서는 手太陰經의 經氣가 有餘한 증상들이 記述되어 있는데 이러한 병증은 ‘太陰中風證’이며 邪氣盛으로 인해 榮衛가 不和하고 經氣不舒하므로 <肩背痛>, <惡風寒>, <汗出>의 外感中風의 증상이 나타나고 아래로 腎經에까지 傳變되면 小便의 횡수가 늘고 小便量이 감소하는 <小便數而欠>의 증상이 나타난다.
<太陰氣虛證>

脾氣가 不足하여 脾氣虛陷의 상태가 되면 이는 ‘太陰氣虛證’으로 <肩背痛寒>과 短氣 증상인 <少氣不足以息>의 증후가 나타나게 된다.

11) 足太陰脾經의 循行部位

脾足太陰之脈 起于大指之端 循指內側白肉際 過核骨後 上內踝前廉 上膈內 循脛骨後 交出厥陰之前 上膝股內前廉 入腹屬脾絡胃 上膈 挾咽 連舌本 散舌下 其支者 復從胃 別上膈 注心中

12) 經絡辨證概論, 前掲書, p. 71.

10) 經絡辨證概論, 前掲書, p. 75. ; 足太陰脾經의 특성은 濕이며 己土이다.

<太陰濕熱證>

太陰氣虛로 인해 金水の 相生작용이 부족하게 되면 膀胱虛熱이 內鬱하므로 '太陰濕熱證'이 되어 小便色이 붉게 변하는 <溺色變>의 증상이 나타난다.

<太陰厥逆證>

『靈樞·經脈篇』에는 手太陰肺經의 病候로 『傷寒論』 太陰病에는 언급되지 않은 '太陰厥逆證'에 해당하는 증상을 記述하고 있다. 手太陰經의 經氣가 厥逆하게 되면 '太陰厥逆證'이 유발되는데, 經氣의 순조로운 流走에 장애를 가져오고 肺氣의 肅降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咳>, <上氣喘渴>, <肺脹滿 膨脹而喘咳>, <煩心胸滿>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經氣의 逆行은 血流의 순환장애를 초래하여 肺經이 지나는 부위에 血瘀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缺盆部位의 痛症>이 나타나고 <甚則交兩手而忤>¹³⁾라 하여 심하면 통증으로 인해 두손으로 胸部를 문지르며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臂厥>¹⁴⁾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經絡部位의 病證>

『靈樞·經脈篇』에는 『傷寒論』에서 찾아볼 수 없는 肺經의 循行部位와 관련하여 <臑臂內前廉痛厥>, <掌中熱>의 증상을 기술하고 있다.

표 2. 『靈樞·經脈篇』 太陰經 病證分類

병증분류	手太陰肺經		足太陰脾經	
	是動則病	所生病者	是動則病	所生病者
太陰中風證		氣盛有餘則肩背痛 風寒汗出中風 小便數而欠		
太陰氣虛證		氣虛則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	舌本強 食則噎 胃脘痛 腹脹善噎 得後與氣則快然如衰 身體皆重	舌本痛 體不能動搖 食不下/煩心 心下急痛 澀
太陰濕熱證		溺色變		痲泄 水閉 黃疸 不能臥 強立
太陰厥逆證	肺脹滿 膨脹而喘咳 缺盆中痛 甚則交兩手而忤 此謂臂厥	咳 上氣喘渴/ 煩心胸滿/		
經絡部位의 病證		臑臂內前廉痛厥 / 掌中熱		股膝內腫厥 足大指不用

3)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太陰病 비교

(1) 太陰中風證

太陰中風證은 腹滿時痛, 吐利證이 있으면서 邪氣盛으로 인해 榮衛가 不和하고 經氣가 不舒하므로 自汗, 發熱, 惡風寒 등 外感中風의 증상이 나타나는데¹⁵⁾, 『傷寒論』에서는 太陰中風證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281조에 <太陰中風 四肢煩動 陽微陰澁而長者 爲欲瘥>라 하여 太陰中風證의 예후를

13) <甚則交兩手而忤>의 <忤>를 歷代注家들은 대부분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精神이 혼란스럽다라고 해석하였는데 丹波元簡만은 <忤>는 煩亂이며 歷代注家들의 견해는 모두 틀린 것이라고 하였다.
 14) 經絡辨證概論, 前掲書, p. 71. ; 이러한 臂厥증상을 현대의학적으로 頭頸部, 쇄골하부, 흉복부에 나타나는 多發性大動脈炎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5) 傷寒論譯註, 前掲書, p. 198.

언급하여 놓았고 『靈樞·經脈篇』에서는 그 증상을 氣盛有餘則 肩背痛 風寒 汗出中風 小便數而欠으로 기술하고 있다.

(2) 太陰氣虛證

太陰氣虛證은 經氣不運의 병리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脾胃의 升降기능이 失調되므로 水濕이 不化하여 泄瀉, 腹部脹滿痛 등 각종 寒濕의 증상을 보이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脾氣의 不運으로 營氣가 體幹과 四肢, 舌根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므로 脣이 무겁고 脈이 弱하며 허가 굳거나 아픈게 된다. 『傷寒論』에서는 8개의 太陰病 條文 중에서 4개 條文에 中焦의 升降 기능 실조와 寒濕의 증상을 위주로 기술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靈樞·經脈篇』에서는 中焦의 升降不利에 따른 증상 외에 四肢와 舌本 및 心經과 연결된 脾經의 循行부위에 營氣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생기는 각종 증상까지 記述하고 있다. 『傷寒論』 太陰病 條文과 『靈樞·經脈篇』의 太陰氣虛證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의 太陰氣虛證 비교

『傷寒論』	『靈樞·經脈篇』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280)	◎體不能動搖 食不下 食則嘔 胃脘痛 腹脹善噎 得後與氣則快然如衰
◎腹滿時痛(286)	◎煩心 心下急痛 澀
◎自利不渴(284)	◎身體皆重(以上 脾經)
◎太陰病 脈弱 其人續自便利(287)	氣虛則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肺經) 舌本強 舌本痛(脾經)

(3) 太陰濕熱證

太陰濕熱證은 脾氣不運으로 인해 水濕이 熱氣와 결합하여 痢疾泄瀉, 黃疸 등 濕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인데, 『傷寒論』에서는 太陰病에 小便不利를 겸하면 黃疸이 오게됨을 언급하였고 『靈樞·經脈篇』에서는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傷寒論』 太陰病 條文과 『靈樞·經脈篇』의 '太陰濕熱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의 太陰濕熱證 비교

『傷寒論』	『靈樞·經脈篇』
◎太陰當發身黃 小便自利者 不能發黃(285)	◎痲泄 水閉 黃疸 不能臥 強立(脾經) 溺色變(肺經)

한편 『傷寒論』에는 『靈樞·經脈篇』의 '太陰厥逆證'에 해당하는 條文이 없으나 太陰病을 誤治하여 下法을 쓰면 반드시 胸下結硬하게 된다는 내용(太陰之爲病...若下之 必胸下結硬(280))을 <煩心胸滿>증상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傷寒論』 전체에서 太陰病 條文은 8條로 그 비율이 매우 적으며 脾氣虛의 虛寒證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靈樞·經脈篇』의 '太陰厥逆證'을 유추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傷寒論』과 『靈樞·經脈篇』의 太陰病의 病候의 비교·분석에서 그 변증과 증상을 臟腑와 經絡으로 확대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三陰三陽經의 전반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傷寒論』에서 辨證의 綱領으로 삼은 '六經'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再照明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傷寒論』에서의 六經辨證의 유래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재조명해보고자 『傷寒論』의 條文 중 ‘陽明病’에 表裏로 대응하는 ‘太陰病’에 대하여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병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의 知見을 얻었다.

『素問·熱論』의 太陰分證은 『靈樞·經脈篇』의 太陰經의 病候로 발전하였고, 『傷寒論』에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太陰病辨證의 모델이 되었다. 『靈樞·經脈篇』의 太陰經의 病候와 『傷寒論』의 太陰病의 病候를 太陰中風證, 太陰氣虛證, 太陰濕熱證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서로 밀접하게 부합하였다. 이는 『傷寒論』 六經辨證의 辨太陰經脈證并治가 『靈樞·經脈篇』의 手足太陰經의 經脈病候에서 유래하여 이를 보다 체계화한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經絡 분포와 연계한 足太陰脾經의 股脛內腫厥, 足大指不用 및 手太陰肺經의 臑臂內前廉痛厥, 掌中熱 등 증상의 太陰病辨證과의 관련성 여부는 임상과 연계하여 앞으로 연구가 기대된다.

이상에서 『傷寒論』에서 太陰病은 外感疾病은 물론 脾·肺臟의 병리반응의 증후와 手足太陰經의 氣化病變에 대한 辨證과 論治까지 개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승렬, 신희목, 『靈樞·經脈篇』과 『傷寒論』의 陽明病에 대한상관성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6):1085-1091, 2002.
- 金完熙 外,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 金賢濟·洪元植 編譯,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 孟雉在 譯編, 傷寒論概說, 韓國 益山市,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 朴憲在, 傷寒論概論, 서울, 藥業新聞社出版局, 1995.
-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 素問, 서울, 成輔社 傳統醫學研究所, 1995.
-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傳統醫學研究所, 1995.
- 裴秉哲 編著,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 裴秉哲, 傷寒論總綱, 서울, 成輔社 傳統醫學研究所, 1996.
- 申興默 金吉萱,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臟腑經絡學, 慶州, 東國大學校出版局, 2000.
- 安圭錫·엄현섭·김성훈, 傷寒論病證鑑別治療, 서울, 成輔社 傳統醫學研究所, 1995.
-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杏林書院 影印, 1976.
- 朱肱, 活人書, 서울, 아티전, 1998.
-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4.
- 崔達永, 傷寒論釋講, 서울, 大成文化社, 1995.
-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 高德, 傷寒論, 北京, 中外文化出版公司 春秋出版社, 1988.
- 高峰 編著, 鍼灸心傳, 北京,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93.
-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傷寒論釋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 竇材, 扁鵲心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2.
- 上海中醫學院 編, 新編中醫學教材 中醫學基礎, 中國 上海, 商務印書館, 1984.
- 王輝武, 傷寒論手冊, 中國 重慶市,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4.
- 劉建平 外 編著, 傷寒雜病論,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 劉孔藤 主編 岳汎·周然密·錢小燕 編著, 經絡辨證概論, 中國, 廈門大學出版社, 1988.
- 劉渡舟,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3.
- 任應秋 主編, 中醫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中國 上海, 1983.
- 李吉祥 編著, 臟腑經絡遺方用藥,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 張仲景 著·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 戴玉 等 編著, 仲景辨證治療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 錢超稍,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 陳國信 外 4人, 傷寒論症狀鑑別綱要, 中國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 陳鼎三 編著, 醫學探源, 中國 四川省,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6.
- 崔月梨, 金匱要略, 北京, 中外文化出版公司 春秋出版社, 1988.
- 韓祗和 撰, 中國醫學大系 第6卷 傷寒微旨論 傷寒源篇, 中國, 商務印書館,
-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대한 연구, 慶州,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4.
- 朴贊國, 仲景의 生涯와 後世傷寒家の 六經辨證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 碩士學位論文, 1981.
- 王琦, 陳庚, 近三十年來有關 『傷寒論』 三陰三陽問題研究概況, 中國, 山東中醫學院學報, 7(1), 1983.
- 殷鐘元, 黃帝內經과 仲景傷寒論의 醫學思想的 連繫性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碩士學位論文, 1986.